

이江山이民族

[新東亞] 卷頭言 제4권7호 (1934년 7월호)

人類文化의 發源이 山岳과 江河에 있음은 다시 말할 것이 없거니와 朝鮮의 上下 半萬載에 한 長長한 民族文化史를 開闡하려 할진대 또한 域內의 山川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곧 文化史 그것임을 볼 것이다. 檀君으로부터 扶餘로, 韓으로, 肅愼으로 高句麗로, 新羅로, 伽倻로, 百濟로, 靺鞨로, 渤海로, 高麗로, 金으로, 女眞으로, 滿洲로, 朝鮮으로, 朝鮮民族에 關係된 모든 歷史가 다 山岳과 江流를 根據로 하고 胎盤으로 하고 또한 同時에 舞臺로 하고 거기서 發展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古代뿐만이 아니라 歷史를 通하여 今日에 至하기까지 실상 따져보면 山岳과 江河 그것이 一切의 樞機가 되고 一切의 要素가 되고 一切의 生分이 되어 文化의 큰 덩어리를 運行시키고 發育시킴으로 蘇潤시켜 온 것이다. 實로 山岳은 朝鮮民族의 信仰的 大願佛이오 江河는 朝鮮文化의 知識的 大師匠이라고도 볼 것이다. 風雨에 꺾인 나무 山上에 쓰러진 거기 그 밑에서도 嚴肅한 朝鮮文化의 部分 部分을 確實히 보는 것이오, 波浪의 파낸 흙이 河邊에 밀린 거기 그 속에서도 久遠한 朝鮮精神의 句節 句節을 分明히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山이 다만 山이 아니며 江이 오직 江이 아니어서 그것은 그대로 歷史의 出發點이자 機要, 文化의 入門이자 寶庫이다. 그리하여 朝鮮의 山岳과 江流를 더듬지 않고서는 거기 끼쳐진 朝鮮民族의 信仰 習尙 乃至 學問 藝術 政治 等 一切의 文化的 本源 및 特質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朝鮮人은 山川巡禮 또는 山川研究의 熱과 誠이 끊기어 저절로 民族의 歷史와 文化를 蕪雜 속에 그냥 버리며 晦冥한 채 그 發闡할 期約이 아득해지고 말았다. 이렇게도 이에 對한 用意가 없고 關心이 끊긴 것은 그 結果를 적은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自家의 精神과 現實 그 生活의 全體에 影響을 波及한 것임을 본다. 스스로 不忠不義하고 不親不實함이 이에서 더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朝鮮本來의 文化를 整頓樹立한 然後에야 正明한 認識을 얻어 그 나아갈 길을 찾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庚炎을 當하여 學窓과 其他 業務를 잠깐 버리고 休養하는 때에 親히 이 山岳을 踏破

하고 이 江河를 涉盡함으로써 朝鮮文化의 根基와 色態를 體認하기를 希願하는 本意에서 우리는 朝鮮山水 特輯號를 刊行케 된 것이다. 이것이 雜誌인 만큼 그 全貌를 說盡키 어려움은 毋論이나 簡單한 紹介中에서도 所得이 있을진댄 그로써 幸을 삼고자 한다.